

문화산책

이당금

예술이 뻥그라운드 대표



골든글로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작곡가이자 노래를 부른 이재의 수상소감이 화제다. 거절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며 눈 앞에서 벽이 닫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문장은 이상할 만큼 정확하게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것 같다. 병이라는 이름의 거절 앞에서 나는 멈춰야 했다. 그토록 열심히 해왔건만...왜 하필 나야? 라는 안타까움이 우선하다보니 그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버거웠다. 어떤 계기로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틀어버린다. 소리도, 예고도 없이! 나의 경우 그것은 ‘뇌종양’이라는 단어로 다가왔다. 물리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단단한 벽은 물리적보다 심리적으로 더 크게 압박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멈추는 것에

Rejection is Redirection

대해 부정적이다. 멈추는 것은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실패를 의미하기에 현대인들의 삶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될때까지 끊임없이 발동시킨다. 마치 초고속 스피드로 타이어를 마모시키며 부릉부릉 커다란 굉음을 울려대는 F1경기처럼. 스타트 선을 출발한 레이스는 흥분되고 짜릿해서 열광한다. 그 굉음은 점점 더 높은 속도로 몰아붙인다. 결국 브레이크 파열을 알면서도 멈춰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고통을 비극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고통은 언제나 삶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말을 건다. 진단 이후 삶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여졌던 호흡과 수면, 식사와 배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의 리듬이 하나의 질문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술 이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시나브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온 것이 아니라, 버텨온 삶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또한, 고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몸이 먼저 말을 걸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신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수술실의 강한 빛 아래에서 나는 어떤 역할도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인간, 생존을 연습하는 존재였다. 그 경험은 나를 부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불필요한 욕망들로부터 방향 전환시켰다. 더 절해야 한다는 강박,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 멈추지 못하는 성실함으로부터. 이제 나는 ‘극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 한다.

고통은 이겨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건너야 할 강에 가까우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건너느냐가 아니라, 건너는 동안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로 발견했느냐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지금 자신의 몸이나 마음, 혹은 삶의 벽 앞에서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고, 거절은 추락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방향 수정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살아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조금 느리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나 이전보다 더 정확한 방향으로.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의 좌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삶을 통과하고 있다. 때로는 윤기 흐르는 적토마를 타고 달리듯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잠시 멈춰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용기도 필요하다. 멈춘다고 방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삶을 소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일과 사람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는 간격을 지키며 조금 느리게, 그러나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2026년이 그런 균형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린다.

기고

채문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과 학예연구사



전시는 ‘크게 보여주는 힘’으로만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아니다. 규모 있는 작품 앞에서 감탄이 터지는 순간도 분명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떠오르는 것은 화려한 장면보다 전시장에 써 있던 작가노트 한 줄일 때가 많다. ‘작가는 왜 이런 장면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관객은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에서 작가를 만나는 사람으로 전시에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요즘 관객의 취향은 더 세밀해지고 다양해졌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졌고, 전시도 이런 차이를 존중할수록 각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불룩버스터급 대형 전시가 한 번에 시선을 끌어당긴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걷고, 멈추고, 다시 읽을 수 있는 전시가 힘을 얻고 있다. 전시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보다 ‘어디에서 멈췄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 관람이 끝난 뒤에도 기억에 남는 것은 대개, 그 멈춤이 만들어낸 짧은 생각과 감정이다. 그래서

작가를 만나는 전시

관객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붙잡을 수 있는 잠깐의 여유다. 그 여유가 생기는 순간, 전시는 비로소 내 경험이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ACC는 ‘뉴스트(NEWST)’라는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전남에서 일정 기간 활동해 온 작가들을 발굴하고 관객이 ACC에서 처음 마주치는 전시장에서 소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NEW)’은 작가의 나이나 경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이 작가가 무엇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익숙한 풍경을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들고, 무심히 지나치던 이야기에서 시선을 붙잡는 장면 하나를 끌어올리는 힘. 그 힘이 뉴스트가 말하는 ‘새로움’에 가깝다. 뉴스트가 열리는 전시7관은 관람객이 ACC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전시장이다. 말하자면 ACC 전시의 ‘첫 문장’이다. 첫 문장은 짧고 분명해야 한다. 어렵고 긴 설명보다, ‘이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소개가 먼저 와야 한다. 첫 문장이 좋으면 관객은 ACC를 밟고 더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반대로 불친절하면 ACC 전체가 어렵게 느껴질 것이

다. 그래서 전시7관에서 보여 줄 뉴스트 전시는 ‘환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로 세로 12m 내의 공간이기에 작가와 작품을 가까이 마주하고 하나하나 첫인사를 나누듯 작품을 보며 숨을 고를 것이다. 그리고 남은 ACC 전시들이 궁금해질 것이다. 결국 ‘왜 지금 ACC에서 전시7관이라는 작은 공간을 새로 선보이는가, 왜 작가를 만나는 전시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전시는 문을 나설 때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만남이 다음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관객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비평가, 협력 기관과의 연결로 작가의 다음 행보가 이어질 때 전시는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새로움은 화려한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작가가 오래 쌓아 올린 생각을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정성껏 옮겨주는 과정에서도 새로움은 생긴다. 이런 번역이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 관객의 기억에는 ‘오늘 좋은 전시를 봤다’보다 ‘오늘 참 좋은 작가를 만났다’가 남을 것이다. 뉴스트가 이런 만남을 꾸준히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공중 협박’ 처벌 강화해야

최근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과 협박이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을 겨냥한 폭과 협박 글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들 시설물에 대한 협박 글 대부분이 금전 요구나 장난스러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는 테러 협박 범죄가 공권력 낭비는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다가 국민들이 나중에 폭과 협박에 둔감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처벌 수준이 약해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공중협박죄가 현장성 중심으로 설계된 데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협박 범죄를 강하게 제재하기 어렵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 협박에 대해서 반드시 엄하게 형사 처벌하고 민사상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모방범죄나 허위 협박 예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선 법원의 양형 기준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중 협박 처벌은 무조건 강화할 필요가 있다. 허위 협박에 그치더라도 더 이상은 봐주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만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복 고흥경찰 대서파출소장

사설

호원, 현대차그룹 최고협력사 타이틀 땀다

광주를 대표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전문기업 ㈜호원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의 최고 협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2025년 협력사 평가’에서 기술 부문 최고 등급인 ‘기술 5스타’ 인증을 받고 인증패를 수여 받은 것이다. 현대차 그룹의 ‘기술5스타’는 지난 2002년 정몽구 회장(현 명예회장)의 품질경영 전략에 따라, 자동차 부품 품질이 차량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협력사의 품질, 기술, 납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말한다. 이를 획득하면 현대차그룹 내 신차 개발 우선 참여 기회 확대와 결제 조건 개선, 정부 과제 지원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기술 신뢰도를 입증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호원의 이번 인증은 현대차그룹의 전체 협력사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1차 부품 협력사 450여곳 중 이를 보유한 기업이 37곳으로 약 8%에 불과한데 특히 차체부품 분야에서는 호원을 포함해 단 3개사만 이들을 올렸기 때문이다. 즉, 호원이 국내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최상위권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가 기존 연구소 인프라 보유 여부보다는 실제 신차 개발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성능·원가 등을 중점 점검한 방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호원은 이번 평가에서 경량화 차체부품 설계 능력과 양산성 확보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 품질·성능 평가 역량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 성형 신공법과 디지털 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 시험·해석 상관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86년 창사한 호원은 차체 모듈과 프레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온 광주 지역 중견기업으로 ‘1억불 수출의 탑’ 수상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호원이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파트너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

화재지킴이 전남 의용소방대원 감소하는데

전남지역 화재 지킴이 의용소방대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빠져 나가는 인원에 비해 신규 유입이 더딘데 따른 것이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로 평상시에는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화재 예방 캠페인, 주민안전 교육 등을 통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대원에게는 소방·재난 업무 수행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 민방위대 편성 면제, 자녀장학금 지급, 2급 소방 안전관리자 응시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의용소방대원의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전남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만1046명에서 2022년 1만911명, 2023년 1만825명, 2024년 1만457명, 2025년 1만153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이다. 반면 광주는 2021년 1244명에서 2022년 1289명, 2023년 1288명, 2024년 1268명, 2025년 1274명 등 꾸준히 1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행 의용소방대 법이 대원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정하며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남 농어촌의 경우 청년층 자체가 부족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의용소방대원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대원 모집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남소방본부가 기존 상·하반기 정기모집 방식을 연중 실시모집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런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문제는 전남 농어촌은 가족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빈번할 우려가 높은 지역인데 화재 예방 지킴이 역할을 할 이들이 부재해 화재현장 대응력이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 미만으로 한정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의용소방대 중심의 대응 체계에다 추가로 중장비 운용, 드론, 수색·구조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회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신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